

# 노조무력화 노린 임금 통제책

## 올해 정부의 임금안정 정책

### 클집는 순서

1. 정부, 경총, 전노협, 노총의 임금인상안 비교
2. 정부의 임금안정 정책
3. 앞으로의 임무 전망

#### 1. 총액임금제한 임금억제정책

정부는 지난 2월20일 '정부의 임금억제책을 적용하게 될 중점관리대상업체 1천5백28개소를 선정(근로자수 1백66만2천여명 추산)하고 이들 업체의 임금인상률이 5%선을 넘을 경우, 정부 주요 인허가 사업참여배제, 회사채 발행제한, 은행 등 금융기관 여신심사 대폭강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의해 총액임금증점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1백8개사, 근로자 5백인 이상의 대기업 8백68개사, 3백인 이상의 서비스업 3백42개사, 시장 지배적 사업장 2백10개사를 선정 하였고, 대졸 초임의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영 및 민간 업체 대졸초임의 동결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해마다 임금억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왔다고 행정력을 동원하지만 87년 여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번도 관철된 바가 없는 정책이다. 다만 올해의 임금억제 정책의 특징은 기본급이나 통상급 기준이 아닌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점,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점, 이런 것을

비탕으로 예년보다 강화된 형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해보겠다는 점이 예년보다 임금억제정책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표1〉 노동부의 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범위

구 성 항 목	현행 기준	새로운 임금교섭 지도기준

## 총액임금·직능급제 축으로 임금억제계획 물가폭등속에 생존권위반 인상불가피

다르다.  
2. 실효성 없는 임금억제정책  
전노협이 집제한 바에 따르면

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소득원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는 임금인상시기가 때마다 한차례씩 억제정책을 의처하지만, 자본은 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과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 사이에서 수단을 인상은 편법으로 대응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92년 임금인상을 앞두고 도입한 것이 총액임금제이다.

승리 시사.  
-구속된 5공인사중 유일하게 복역중인 장영자씨 곧 풀려날 듯.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 정부의 인력수급정책 허점 드러내.  
-동국대생 4백여명 등록금 인상항의 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 국고보조금 확대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마련 시급.  
-3월13일: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법 조건부 위헌 결정. 이에따라 무소속후보는 약 100명 공백한 기회 부여받음.  
-정부의 총액임금제에 공공기관노조 반발확산, 임금억제 방침철회 하지않으면 공동 투쟁돌입키로.  
-남아공, 울들어 최악의 유행사태 발생. 테러로 25명 사망.  
-3월14일: -본고 노천극장에서 '92, 자! 우리 손을 잡아' 공연. 선거 참여 유도로 반민자당 투쟁 의욕 고취시켜.  
-고급택시제 연내 시행.

이제는 지금까지 기본급이나 통상급을 기준으로 임금인상하던 것을 상여금, 수당을 포함하여 1년에 받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은 임금억제정책을 좀더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표2 참조)

또한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을 의지는 정부 스스로가 임금억제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는 92년 공무원 임금을 '기본급 9%인상을 하는 한편 기본급의 30%인 직무수당을 11월부터 40%로 조정해 공무원 보수를 9.8%인상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한 9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가 91년 4조5천3백3십억원에서 92년 5조3천6백5십

〈표2〉 주요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비교(1985-1990년)

	한국	대만	미국	일본
1985	1.33	1.55	8.54	6.98
1986	1.41	1.77	9.73	10.18
1987	1.70	2.31	9.91	12.10
1988	2.35	2.88	10.18	13.73
1989	3.33	3.66	10.47	13.07
1990	3.86	4.12	10.83	13.7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2년 KIL노동통계) 94쪽

우리나라에서 내지도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등 임무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표2 참조)

#### 4. 직능급제의 도입

노동부의 임금정책의 한 축이 임금억제정책으로서 총액임금제라면 다른 한축은 성과급을 성과배분제로의 활용 등 직능급제의 도

입이다. 지난 2월13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회사가 지불하는 특별상여금을 노조가 되려 거부'라고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화천기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회사는 노조의 상여금에 대한 협상요구를 무시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S)제도의 정착금 5%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 노조에서 100%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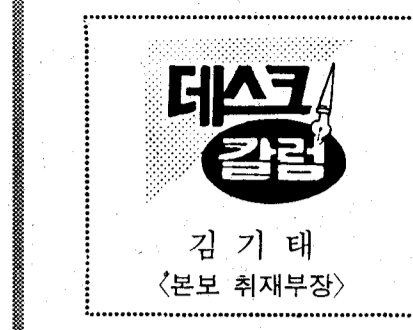
그러서 문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MBO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MBO제도는 생산, 판매 등 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의 가중치를 정하고 성과도에 따라 점수를 정하여 이에 따라 점수가 높으면 상여금을 많이 주고, 점수가 낮으면 적게주었다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경영과 인사문제에서 노조가 완전히 배제되어 경영과 인사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따라서 자의적인 사측의 비중치를 신뢰할 수 없고, 노사안정이라 함은 노조의 활동을 생산관리로 취급하는 노조와해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화천기계창원공장은 5%를 더주지만 광주공장은 상여금이 깎여서 지급되는 현상으로 나타나 오늘의 5%를 더받는 것이 내일에 노조의 와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5. 정부주도의 임금체제 왜곡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근거중 하나가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수당이 다양하여 임금체제가 복잡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직능급제, 성과급제 등으로 나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임금체제가 복잡해진 원인은 성과급제나 직능급제 때문인지 정교한 임금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임금체제가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임금체제가 복잡해지면 임금체제의 왜곡은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대중진출로 이를 선거혁명



## 보수세력 이끌어 낼 대안세력 창출에 노력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주 앞으로 다가왔다.  
3.24총선은 12,13대 총선에 비해 정권말기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역할과 함께 대통령선거에 영향력등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민중운동세력에게도 3.24총선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집권여당과 야당의 보수연합 안정 구축의 연장이나 자기활로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중반을 접어들면서 후보자등록이 완료되고 동시에 정의유세등 각 정당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질적 병폐인 향음, 타락, 관공개입등 불법·부정도 판을 치고 있다.

이와함께 2,30대 젊은층의 정치불신과 허무의 팽배로 인해 3.24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민중들과 야당의 모든 민주세력들은 기성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선거가 집권여당과 야당의 내뿜기식 경쟁으로 현 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합법적 통로가 되도록 발조해서는 안된다.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선거감시 기구인 '공정선거 시민의 실천모임'이 결성, 부정선거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자체의 감시기구들을 속속 발족시키고 있다.

민중들의 자생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투표지역에서 민중적심리지 못한 제도권 정당의 인사들이 아닌 민중후보를 추대, 자신들의 탐착적 않은 대표자를 국회의로 보내는 대신 자신들의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론·정책·실천, 권공문·현현대연진노조 위원장의 어버님등등... 우리는 여기에 오기까지 무수한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를 체험했다.

전두환 폭압정권을 물리친 87년 6월항쟁과 한국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던 노동자 7.8.9월 투쟁, 또한 지난해 명지대 강경대군 시위를 시발로 전개되었던 5월 투쟁...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현재 정치, 경제, 사회의 암울한 상황이 그 많은 열사와 민중들의 피의 맺기야말로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판은 온갖 협잡과 밀약이 난무하여 '민주화'란 단어는 어원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하늘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목숨을 연명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방의 진정한 주인들은 소외의 늪으로 자꾸만 빠져들고 있다.

대내외 무엇이 잘못되어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3.24총선후 똑같은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안되며 역사속의 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기에 먼저 보수야당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을 떨쳐버리자.

누가 아니면 안된다든지 누구 이외에 적을 만들 안된다든지 하는 식의 동전의 앞 뒷면을 바꿔 동전을 바꿔보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그들은 수차례의 정치적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야당의 총살한 동반자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에 더이상 민주세력에 포함되어도 안된다.

그들의 기회주의적이고 부르조아적인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하는 것이다. 다음 우리의 정치대안세력을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창출하자.

보수야당에 대한 적극적 폭로를 통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민중의 아픔을 같이 할 대안세력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하고 집권당의 실정을 오히려 비판해 나가 민중들의 대안은 오로지 민중본임을 서로 알려 나가야 한다.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자신만큼 잘 아는 이, 올바르게 실천할 사람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들은 각 지역에서 민중을 위한 만만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지역을 우리 이웃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후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철히 요구되어야지만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변화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결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실비성격을 갖는 수십 가지 수당을 부처별로 지급하고 있다.  
직능급제는 일본에서 자본이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는 유용한 노무관리체제로 인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제철이 도입하였고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연구단체에 와 있다. 포항제철은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직능급제를 도입하였는데, 단일호봉제는 연공급형으로 하였으며, 직능급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2개의 임금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직능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결과 직능급의 비중이 높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한자리수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유일한 수입원인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투쟁으로 분쇄해나 갈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과제이다. 또한 일본의 성공적인 노동통제 수단으로 인정된 직능급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임금생활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총액임금제에 대한 반대를 분별히 하면서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체제, 직능급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내와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박일남  
(전노협 정책실)

### 한주메모

- ▲ 3월10일: -총선등록마감. 무소속 225명으로 13대때의 2배
- ▲ 미사실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화물선이 이란 입항에 성공
- ▲ 3월11일: -러시아연방, 다단무시일전면폐기. 전략핵도 대폭감축
- 서울시, 주차난 완화위해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안전사고 대비책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 현대건설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청와대 근거없다며 일축
- ▲ 3월12일: -유서대필 항소심에서 김기훈씨 공소사실 모두 부인. 국과공 공신력 심판 받게 될 듯.
- 중국, 앞으로 백년간 개혁 정책 고수기로. 보수파에 대한

승리 시사.  
-구속된 5공인사중 유일하게 복역중인 장영자씨 곧 풀려날 듯.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 정부의 인력수급정책 허점 드러내.  
-동국대생 4백여명 등록금 인상항의 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 국고보조금 확대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마련 시급.  
-3월13일: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법 조건부 위헌 결정. 이에따라 무소속후보는 약 100명 공백한 기회 부여받음.  
-정부의 총액임금제에 공공기관노조 반발확산, 임금억제 방침철회 하지않으면 공동 투쟁돌입키로.  
-남아공, 울들어 최악의 유행사태 발생. 테러로 25명 사망.  
-3월14일: -본고 노천극장에서 '92, 자! 우리 손을 잡아' 공연. 선거 참여 유도로 반민자당 투쟁 의욕 고취시켜.  
-고급택시제 연내 시행.

기업가이드는 한국대학신보와 유니콧이 매년9월 발행하는 채용정보지입니다

# 취업 문제로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92기업가이드」를 만나보십시오

이제는 취업에도 장기적인 전략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92기업가이드」에는 국내 700여 주요기업의 상세한 채용정보와 채용패턴 분석, 주요 산업별 고용동향 및 전망, 그리고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실전대책등 취업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가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대학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채용정보지 「기업가이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만나보십시오.

■ 주요내용 ■ 700개기업 채용정보/14개산업별 고용동향/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실전 취업대책/여대생 취업전략/이력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하나/자격증 철저분석

「92기업가이드」는 교보문고·종로서적·을지서적·영등포문고·한가람문고 및 유니콧추진위원회 (TEL 278-1100)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